

2024 LEADERS FORUM 속기록

일자	2024.02.06.(화) 15:00~17:00
장소	소노펠리체 텔피노 그랜드볼룸
참여자	중앙대학교 총장단, 학생대표자

[사회자]

지금부터 총장단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먼저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단과의 대화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참석하신 대표자들의 의견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정된 요구안을 순번별로 질의해 주시면 질의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답변받으신 내용 이외에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자리를 이동하여 만찬을 겸한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장소는 장사항의 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하지 못하시는 안전이나 답변을 못하시는 안전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과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장단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선정된 요구안을 순번별로 질의해 주시면 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학생 대표자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멋진 피터를 통해서 저희 중앙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길러주신 부총장님, 총장단께 학생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108관 완공에 이어 신공학관인 205관의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영향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학업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일환으로 노후화가 된 시설을 보강하고 새로운 연구 시설의 확충에 힘써주시는 저희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5관 완공 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내 공간 재조정에 있어서 학생 자치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지속적으로 캠퍼스 내 공간 구조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치 공간, 실습 공간, 휴식 공간, 개방 학습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0관의 완공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간 증설이 도움은 되겠지만 내부 공간의 조정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자치 공간, 실습 공간, 아이크리

에이터 등과 같은 학습 개방 공간이 필요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신지, 또한 205관 혹은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해당 공간을 조성해 주실 수 있을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총학생회장님 질의 다 끝났나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전공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는 다전공 선발 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우들 사이에 불만족과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파악합니다. 투명성 부족으로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몇 명이 선발되는지, 학점 커트라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전공 선택과 설계에 있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전공 선발 시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합격이 이어진다면 목표한 학문 단위의 수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본 전공과 함께 다전공의 목표와 희망에 따라 설계하여 융합형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전공 선발 기준의 결과는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 학점 기준, 전년도 커트라인 등 면접 평가 기준, 선발 학생 수 등 다전공 선발 기준 공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최종 선발 학생들의 합격, 면접 선발, 인원 수 등의 다전공 선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생 대표자분의 질의를 모두 받은 후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간호대학 대표자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좀 변경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그러면 총학생회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205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내 공간 유치협의체를 신설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공간 배정과 사용에 관한 협의체는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협의체를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숙고를 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중앙대학교에서의 공간은 신도 어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마는 310관이 지어지고 나서 그나마 여유가 좀 있나 싶었는데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간 문제는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각 단위별로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면 저희들이 또 예를 든다면 중앙도서관이 있고 각 단과대학별로 또 도서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마 후석동에 좋은 공간에 건물을 무제한으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든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범 연구부총장]

네 다음으로 다전공 선발 기준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는 건 좋은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선발 기준이 매 학기마다 선발 학생 수, 학점, 커트라인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게 큰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작년도에 선발 기준을 제공을 해도 너무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전체적이 아니고 단과대학별로 공개 여부를 논의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세 번째가 잔디 운동장 관리 요청이죠. 그렇죠? 아직 안 했어요? 예습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사회자]

그럼 총학생회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적십자 간호대학 대표자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B반 비상대책위원장 권용준입니다. 학생 자치 및 휴식 공간 추가 확보에 대해 대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 및 휴식 공간 추가 확보 요청에 대해 4층 학생 휴게실의 환경 개선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또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의 주 사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네 학생 자치 및 휴식 공간 추가 요청을 하신 내용이죠? 23년도에 2층, 3층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완료했고요. 108관 3층 세미나실을 휴게공간으로 추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4층 학생 휴게실에 대해서는 23학년도 학생 대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고요. 노후 집기 개선 등 환경 개선을 24학년도 1학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경제대학 대표자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경제대학 대표자]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김윤지입니다. 저희 경영경제대학이 제출한 단위요구안에 순번 21번인 310관 자유이용 공간 증설에 대하여 대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4학년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310관 환경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설문 결과로는 자유이용 공간 증설에 관련한 내용이 약 57%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세부 의견으로는 ‘공부 라운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이 큰 것에 비해 학생들이 공감 시간에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대면 체제로 변경된 이후 310관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10관에 마련되어 있는 개방 휴게 공간은 늘 자리가 부족하여 학우분들께서는 휴식을 위한 공간 탐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우분들의 원활한 공간 이용을 위해 310관의 자유 이용 공간을 증설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조금 전 리더스 포럼 주요 추진사업 설명회에서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아이크리에이터 공간 신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이크리에이터 공간 신설은 310관의 유휴 공간을 학부생들의 학습 공간 및 휴식 공간으로 증설할 수 있다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공간에는 약 35좌석이 증설되는 것으로 보이나 310관을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크리에이터 공간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추가 증설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310관의 공간에 대해서는 310관을 사용하는 다양한 단위체들과 단체, 학교 측의 이해관계가 얽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310관을 사용하는 타 단과대 및 학교 측과 공간에 관해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요청하여 310관을 사용하는 모든 단위체 및 학교 측과 310관의 공간들에 대한 재조정 논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학우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대한 조사와 기획을 진행하여 저희 경영경제대학 학우분들의 의견을 본 공간 증설 기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유 이용 공간 증설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유 이용 공간의 재구성은 진행이 가능한지, 해당 기획안을 학교 본부 측에 제출한다면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말씀하신 내용이 올려서 제가 거의 알아듣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만 청력에 문제가 있느냐 해서 옆에 부총장님한테 들려요 했더니 잘 안 들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게 쪽 이렇게 해오셨는데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표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휴게 공간. 그래서 310관의 자유 이용 공간을 좀 증설해 달라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리십니까? 근데 왜 반대 방향은 잘 안 들리죠? 올려서 그런가 봐요.

지금 요청하신 게 학생회와 함께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310관이 우리가 같은 경영경제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부 공과대학에서 컴퓨팅 관련 학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각 단위마다 사실은 우리가 책을 사면 이 책이 누구 거다라고 이름을 쓰는 것처럼 공간에 정확한 사용 주체를 붙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학교는 끊임없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서라벌홀, 봄스트홀 이렇게 불렀던 건물 명칭을 301관, 2관, 5관, 10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책을 저희들도 마련해야죠. 그래서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와 함께 310관에서 경영경제대가 사용하는 공간을 함께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까는 함께 노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곧바로 행정실과 함께 그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단상에서 여러분들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소통, 저는 여기서는 잘 들리는데 단상이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한 10분 정도 종료를 했다가 단상을 앞으로 내려서 총장단이 좀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럼 잠깐 10분 동안 휴정하고요. 자리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계세요.

(약 2분 후)

여러분들의 빠른 협조로 네 행사장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대 대표자님? 안 계신가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제13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강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기존 단위요구안을 통해 총 13가지의 요구를 전달 완료하였고 답변 받았습시다. 그중 몇 가지 소명되거나 해결을 논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단위요구안 1번 203관 시설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203관이 2029년 철거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으며 그 기간까지 203관을 사용해야 하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결국 벽과 게시판 등을 도색하는 외부 공사이며 강의 공간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또한 톱플, 동아리 등 학생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빈도가 높지 않은 강의실의 경우 학습 공간 또는 자치 공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정형 책걸상 교체 등 점진적인 203관의 개선 계획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앞선 행정부총장님의 발표를 통해 203관과 303관의 책걸상 일부 교체 및 시트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서라벌홀의 경우 변경되는 책상의 수가 25개에 그칩니다. 또한 시트 간격의 경우 고정형 책걸상 형태가 유지된다면 학우들의 학습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라벌홀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학습 공간, 자치 공간 배정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총장님의 발표를 통해 205관 완공 이후 203관이 철거되고 이후 310관에 203관 사용 주체들이 이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3관은 사과대, 인문대, 사범대 3개의 단위가 사용하고 있고 각각 단과대의 학문 단위 수가 많습니다. 현재 310관 사용하는 공학계열 학과부가 205관으로 이전한 후에 3개 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도 이 이전 계획에 있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도 310관 자치 공간 사용 관련하여 사용 주체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 단위가 있는 우리 단위를 포함하여 203관을 사용하는 단위가 강의 공간 및 자치 공간을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해당 이전 계획과 이

후 추가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학과부 부학생회장 봉사장학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과부 부학생회장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규칙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과부 부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에 대해 기존 사회과학대학 단위요구안 4번을 통해 질의하였으나 현재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학생회장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규칙 변경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학대학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네 질문하신 거 잘 들었구요.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학내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를 말씀드리자면 203관에 지금 사범대, 사회과학대, 인문대가 학업을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인문대학 교수라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203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2029년도에 건물을 없앨 예정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거기서 해야되고 그래서 충분히 환경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5억인가를 투자하여서 일단 벽과 창과 등의 환경 개선을 하고 그 전년도에는 화장실 개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곳에서 철거할 건물에 왜 투자를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그때까지 학생들은 공부를 그곳에서 해야 되고 해서 개선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의실 내에 구형 책걸상, 고정형 책걸상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고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 개수가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전부 다 개선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지만 전부 다 그 이전에 개선을 할 것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개 단과대학이 310관으로 이전을 한다면 배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그래서 학교를 좀 의심스러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203관의 전체 공간 활용 공간의 평수와 310관의 평수를 다 계산해서 3개 단과대학에 이전하는 거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 공간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근 학생처장]

학생처에서 지금 질문하신 봉사장학금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한 세칙 내에는 부학생회장에 대한 자체가 일단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이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올해와 내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장학금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부학생회장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장학금 기준 그리고 성적 장학금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이제 재검토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협의가 되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관해서 할 때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세칙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바뀌는 부분들은 어느 하나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

에서 공통으로 주어지는 부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학과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마련되게 된다는 것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예술대학 대표자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예술대학 대표자]

안녕하십니까? 예술대학 서울캠퍼스 66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영화 전공 김유진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사전에 제출한 단위요구안에 따라서 각종 시설팀, 교학지원팀 등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설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계속해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술대학 서울은 물리적으로도 서울에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 역시 서울캠퍼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와 의결 과정이 다빈치캠퍼스 예술대학을 따르고 있어 그 간극이 크게 발생합니다.

서울캠퍼스에 계신 교학지원팀 담당자분들께서 언제나 열심히 소통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학장님과 교학지원팀장님이 안성에 계시며 팀장님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만 서울캠퍼스로 출근을 하십니다. 이에 소통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며 분위기적으로도 다빈치 캠퍼스를 따라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술대학의 행사 및 학생 자치활동 관련 협의를 온전히 서울캠퍼스 구성원들과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대학 구조는 다빈치캠퍼스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어 학생회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떨어집니다. 예술대학 서울을 서울캠의 독자적인 단위체로 편성해 주시거나 최소한 대학의 의결 과정을 서울캠퍼스 안에서 완료하여 대학과 학생자치가 합의된 시스템을 갖추기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술대학 서울과 이하 3개 학과가 서울 캠퍼스의 온전한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구조적인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명칭의 변경부터 추진할 수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대학 단과대 규모의 학생자치 활동도 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의 경우 공연영상창작학부는 다빈치와 서울의 학부장님 역시 각각 따로 계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증만으로는 예술대학 서울을 구분할 수 없어서 예술대학 서울의 배부 물품을 다빈치캠 학우분께서 받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회비가 각각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학우들에게 매우 민감한 회계 문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관한 대학 본부의 의견을 실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은 교육부 법령상 만약에 독립된 단위체로 갈 경우에는 중복 학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총장단이나 그쪽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술대학 연극, 영화나 이 3개 학과가 안성으로 저기 다빈치캠퍼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중복 학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서울캠퍼스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 인문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학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3대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38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준희라고 합니다. 저희 인문대학에서 대표 질의로 송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의 세부 성적 조회 의무화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받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세부 성적을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의무적으로 등록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세부 성적이 많이 등록되지 않은 과목들이 대다수이고 해당 답변과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부 성적 조회를 하고 있는 과목의 수가 매우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인문대학 측 또는 다른 대학에서 나온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으나 계속해서 같은 답변만을 받을 뿐 실질적으로 무언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학을 넘어서 모든 단위체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교수자의 세부 성적 사항 의무화에 대한 요청을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희 교무처장]

네 세부 성적 공개에 관해서 지난 작년도 전년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질문이 인문대학에서 나온 게 놀랍지가 않아요. 놀랍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세부 성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합니다.

내가 학점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학점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수님들로 하여금 시험 문제를 전부 객관식으로 내라고 대학본부에서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성적 공개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철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객관식 시험으로만 교육받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 철학이 그런 거예요. 교육 철학이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게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정성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정량적인 평가만 했어요. 1 더하기 1은 2고, ‘가’, ‘나’ 다음은 뭐냐 ‘다’ 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게 되면 정량이 조금 줄어들고 정성이 들어가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정량이 더 줄어들고 정성이 더 늘어납니다. 대학교에 올라오면 정성이 더 늘어나고 정량이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그다음에 정량은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부 정성이 돼요. 그래서 정성이 늘어난다는 건 교육과정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평성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상을 추구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중간적인 형태로 현재의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학점을 매길 때 어떤 크게 균락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성적 공개하지만 그보다 더 세부적인 성적은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공개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도하는 순간 모든 시험이 다 객관식 시험이 돼버릴 거예요. 돼버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그냥 정량화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문대학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인문학의 특성상 인문학은 굉장히 정성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는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일종의 학문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학교 전체에 적용된 물을 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대학에만 맞춰서 이거를 물을 세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인문대 교수님들한테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학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한테 계속 요구를 저희 대학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문학의 특성상 어떤 범위를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각 학문 단위별로 공평성의 개념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우리 대학 교육이 원래 정성적인 것이라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중앙대 전체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요구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 대표자]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부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휘도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도 단위요구안을 여러 가지 송부드렸는데 그중 대표 질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질의는 실험 과목 수강 인원 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험 과목은 자연과학대학 학우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임에도 인원 수강 인원이 모자라 듣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전공 수업임에도 전공 학우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수업은 전공 수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단위요구안을 통해 질의 드렸는데 학사팀과 학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학과팀과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혹시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자연과학대학에서도 전공 과목 세부 성적 및 평가 기준 공개 요청을 드렸고 다른 단과대에서도 같은 요청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린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전공 과목 세부 성적 공개를 요청드린 것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본 뒤에 그냥 그 성적을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였던 걸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문대랑 그다음에 자연대도 다른 단과대도 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범 연구부총장]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과목 수강 인원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

서는요. 약간 사설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실험은 실험 기자재, 실험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험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실험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실험 인원을 이렇게 한정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의 요구대로 수강을 해야 될 학생은 많은데 인원이 수강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수용을 할 예정이긴 한데 역시 고려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자연과학대학 실험실 하나하나를 다 가본 것이 아니라서 정말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건지 이걸 교학지원팀하고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말이지 불가능하고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 조회 관련해서요. 저는 굳이 정성적이나 정량적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교수님들마다 강의하는 방식, 성적 산출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한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성적 공개를 권유를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숙제 몇 번 중간시험, 기말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학기 내내 토론을 거치고 마지막이 돼야 또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하여튼 가능한 한은 저희가 성적을 공개하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수님들의 성적 산출 방식에는 도저히 그걸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권유만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공대 대표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59대 통일공대 학생회장 전자전기공학부 김용원입니다. 저희 통일공대에서는 207관, 208관, 209관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207관 복스트홀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개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207관 화장실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어 천장 누수 그리고 각종 시설의 파손, 그리고 악취와 해충, 그리고 오래된 창으로 인한 동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손된 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리는 하고 있지만 전혀 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대변기 칸에는 푸세식 대변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 층별로 남녀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복스트홀은 실험 실습 위주의 연구 중심 건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24시간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연구 중심의 학교로 환경 개선, 연구 중심의 학교로 가기 위하여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네 부끄럽습니다. 그 화장실 환경 개선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아직도 건물에 이런 열

악한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올해는 바로 환경 개선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처장님께 예산 있냐고 물어봤을 때 미소를 띄웠기 때문에 ‘저 미소는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실패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 캠퍼스 대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총장]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제가 공간 문제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부총장께서 새로 짓는 가칭 205관입니다. 사실 아직 명칭도 명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지만 당분간은 205관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205관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한 1만 7천 평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학문 단위들과 현황 파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1만 7천 평 정도의 규모를 한 2만 평까지 늘릴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금 혹시 102관이라 310관을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이 뺄 뚫려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건축학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멋이 있을 수도 있고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상황이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놓는 어떤 구조물이 과연 적합하냐 이제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가운데 부분을 일부는 좀 막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205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래 계획이 1만 7천 평이지만 거의 한 2만 평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0관이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4천 5백 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2만 평쯤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우리 대학은 지금 볼스트홀에서만 공학 실험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다 보면 물론 연구중심 대학이 꼭 이공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은 이공계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5관을 지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험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5관을 지으려고 했고 205관이 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험을 많이 하는 학과들은 205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어떤 분이 물어보셨지만 지금 중앙대학교 특히 서울캠퍼스에 산재돼 있는 실험 관련한 학과들이 자연스럽게 205관으로 가게 되면 빠지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 안에도 좀 빠지는 공간이 있겠고요. 310관은 아시다시피 실험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교수님이나 전공자들만 많이 가 있는 분이죠. 그분들이 이제 일부가 또 빠져나올 거고 또 301관도 일부 공간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작업들이 있냐면 301관이라든지 물론 철거하는 거 빼고도 301관이라든지 207관 같은 데는 다시 상당 부분의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5관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서울캠퍼스의 공간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철거되는 202관 같은 경우는 그냥 205관으로 가면 되는데

203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범대, 인문대, 사회대가 상당 부분 공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서라벌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4천 평이 안 돼요. 한 3천 7,8백평 정도 됩니다. 서라벌홀 전체가. 근데 이제 지금 310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은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회대나 인문대나 사범대가 우리가 절로 옮기는데 오히려 공간 문제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학생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게 바로 대학 경쟁력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최대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으로 캠퍼스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게 이제 1단계였고요. 그다음 단계가 그건 이제 한 10년 후쯤에 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다음 단계가 본관과 자연대 이런 건물들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없애야 되겠죠. 이제 그 두 가지 단계가 서울캠퍼스에서 가지고 있는 큰 틀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능하다면 공과대학도 다시 리노베이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아마도 정말 오랜 시간 10년 이후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봅스트홀 화장실 리모델링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반드시 화장실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빈치 캠퍼스 총학생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치캠퍼스 총학생회장]

마이크 키는데 힘을 좀 들였네요.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제66대 청춘 총학생회를 이끌게 된 총학생회장 윤규란입니다. 우선 중앙대학교의 비전과 혁신 그리고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총장단과 이곳에 자리한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교직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전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서 중앙대학교만의 다양성과 개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는 매년 교정을 이루는 학우들을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색적이고 개성 있는 교내 축제를 경험하는 일은 학우분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순간이 되었겠지만 이제 단순한 유흥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담는 중앙대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외국인 재학생을 잇는 다양한 기획과 배리어프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중앙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ESG와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고 이어가는 노력이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2024년도 새롭게 제시하고 전망할 가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는 질문과 함께 학생자치기구의 기획과 운영의 지지와 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푸른 용의 해와 함께 모든 바람을 가로질러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비상하는 중앙대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의 더 안전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빈치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다빈치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세린입니다. 총학생회장님 다음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다빈치캠퍼스 교내 노후화 건물 대상 리모델링입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에는 개교 이래 수많은 재학생들과 교수, 교직원이 또 머물고 떠나갑니다. 캠퍼스에 남은 기억만큼이나 당연히 추억들 또한 그만큼 노후화된 시설들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회관을 비롯한 중앙도서관 이런 건물 외에도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강의실 내에 빔 프로젝터, 또한 와이파이, 그다음에 전자교탁 이러한 것들까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아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 이외에도 강의를 전달하시는 교수님들 또한 강의를 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내 시설들이 항상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지함에 항상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노후화된 시설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퍼스 부지와 그 특성 또한 당장의 예산으로는 안성캠퍼스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은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체제로 교내 노후화 건물과 그에 따른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적절한 개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총장님들과 또 총장님들이 앞에서 발표 때 언급하셨듯이 항상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학본부가 노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중앙대학교를 이루는 모든 여기 계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SG 및 재학생 간 교류 관련 확대 예산 편성은 24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1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월부터 그런 행사나 ESG나 재학생 간의 교류 활동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추경 예산으로 1억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서울캠퍼스도 그렇지만 다빈치캠퍼스도 노후화된 건물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뭐든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지만이 학생들의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1차적으로는 연도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술대학 808관을 전체 리모델링했듯이 24년도에 공예관이나 조소관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공간을 하고 마찬가지로 체육대학이나 이런 데도 필요에 의해서 대체육관도 다 지금 다 바로 공사 다 끝났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전자교탁이나 이런 것들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00대 이상의 교탁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전자교탁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런 학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총무처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쪽

으로 주세요.

[다빈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장 최지혜입니다. 우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저희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에 소속된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 동아리들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지원비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기구입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진로를 모색하고 있어 동아리 활성화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 캠퍼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학생회관을 이용하고 찾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 개선에 대한 고려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단위요구안에서도 작성한 내용이지만 611관 학생회관 지하 연습실에 바닥 장판이 다 밀려 있을 뿐더러 냉방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다칠 우려도 큼니다. 몇 년간 지속된 문제이기에 올해 안에는 지하 연습실 바닥 보수 및 냉방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요구안에 지하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도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금방 치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하가 몇 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꽤나 많이 퍼져 있고 위생적인 결함이 많아 당장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 위생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학생회관 이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외부에 있는 댄스 플로어를 보수를 해서 아주 그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잘 보수를 해놨죠.

멋지게 그러니까 이제 지하도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예산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안성캠퍼스 입찰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것들을 좀 통해서 한번 추진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지하니까 습기도 여름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피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했지만 동아리방 대청소도 한번 해야죠. 3월달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됐는데 곰팡이나 이런 좀 습기가 좀 덜 날 수 있게끔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명공학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안녕하세요 저는 11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김민기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일단 앞서 공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도 좀 공간 개선 관련해서 한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작년 23년도 CAU 리더스포럼을 통해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빈치캠퍼스 학습 요건 개선 계획을 보고 다빈치캠퍼스의 학습 환경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빈치캠퍼스 810관 내의 학습 환경 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다빈치캠퍼스 810관에는 저희 다빈치캠퍼스 내에 모든 전공이 교양 수업이나 전공을 수강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810관에 설치된 일체형 책걸이 의자가 많이 손상되어서 수업을 수강하기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모이는 만큼 이제 수업 시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또는 자습 공간을 원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공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0관의 1층부터 5층 사이에 있는 의자 총 241개의 의자가 파손 및 손상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재구성에 필요한 팀플룸이나 스터디룸 그리고 잉여 공간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호실을 리모델링해서 저희 다빈치캠퍼스의 중앙도서관인 거기 내에 있는 패스트 25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랑 같이 스터디 카페 형태의 좌석 공간을 신설하고 의자를 보수를 진행하는 등 원형관 내 시설 개선이 진행된다면 학우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저희는 810관 내 시설 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개선 요청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일단 또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리자면 앞서 말했듯이 810관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좀 더 들어가자면 810관 내에 와이파이 사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되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느리거나 이러한 등의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캠퍼스 학우분들께 학습 자료를 다운받고 아니면 과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와이파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관 내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의자는 어제 총무처랑 협의해서 수리하거나 지금 이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교체할 거나 아니면 수리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필요하다면 이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810관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팀플룸이라든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에 실험실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저희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빈치캠퍼스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공간을 다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문제는 지금 다빈치캠퍼스 전산처에서 전체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총장님이 편성을 해주셔서 1학기 중으로 아마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예산도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1학기 중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술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치캠퍼스 예술대학 대표자]

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치캠퍼스 제14대 예술대학 회장 서양화 전공 이고운입니다. 먼저 예술대학 환경 개선에 도움 주신 총장단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예술대학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바는 어도비 지원과 성적 장학금 확대입니다. 이에 대한 예술대학 학우분들의 사용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23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청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지원의 경우 현재 예술대학 강의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을 강의 시간의 79%가 사용한다 답했고, 예술대학 20개 전공 중 음악학부 4개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 강의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제 개인 작업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총 80%로 약 1776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 실습실 어도비의 경우는 시공간적 제약, 개인 계정 유출 가능성, 개인 작업 훼손 가능성 등으로 24%만 사용 중입니다. 실습실보다 개인적으로 어도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86%이며, 연간 구독료 27만7200원 혹은 월간 구독료 최대 3만5200원을 개인 사비로 충당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예술대학에서는 어도비 개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 상황이 불가능할 시 어도비 구독료 지원 사업 혹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인디자인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성적장학금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에 해당하는 답변이 70%로 예술대학 등록금에 비해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력한 것에 비해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다른 타 장학금과는 달리 소득분위나 공모전 신청 같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며 학생의 본분인 학업 동기부여, 학업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예술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학업 고정 지출인 어도비 구독료, 악기 유지비, 실습 재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예술대학에서는 기존 학부 수석 30%에서 100%, 전공 수석 30%에서 80%, 학년 수석 17%에서 30%, 학년 우수 15%에서 20% 비율로 확대를 요청하는 바이며, 비율 확대가 불가능할 시 일취월장 장학금, 역량강화 장학금 같은 성적과 관련된 타 장학금 제도 및 예술대학 학생들의 학업 고정 지출과 관련된 장학금 제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어도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적 장학 관련해서는 우리 교학처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관련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요구안으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 방법이 굉장히 좀 힘든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는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쓰는 거나 아니면 v3 이런 것들 이제 공통적으로 다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이 어도비 같은 경우는 소수의 단위에서만 지금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 그다음에 많이 쓴다면 패션 쪽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도비를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년 제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주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규정상 좀 힘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학교에서 교내 컴퓨터 실습실이나 아니면 열람실 그다음에 학생용 노트북 대여할 때 거기에 이제 어도비를 깔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아까도 행정부총장이 말씀하셨지만 학생용 개인 노트북도 15대가 다빈치에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디자인 쪽 하는 학생들은 이제 개인이 이런 거를 좀 깔거나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디자인 쪽 쓰는 컴퓨터실에서 학과 학생지원비나 아니면 실험실습비를 그 단위에서 쓸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구독료 같은 경우도 실험실습비나 학생지원비 쪽으로 해서 학과에서 학과 전공에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학교 전체에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장학금 관련해서는 우리 저기 교학처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신재 교학처장]

네 안녕하세요 교학처장입니다. 성적 장학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장학금은 크게 국가장학금하고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국가장학금 1 유형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령해가는 국가장학 2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외 장학금은 국가도 아니고 교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는 사설 장학재단에서 받는 그런 장학금이 있겠고요. 말씀하시는 성적 장학금은 이제 그 교비로 집행이 되는 교내 장학금이 되겠는데요.

이 교내 장학금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적 장학금인데, 이 성적 장학금이 과거에는 이제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학과 1등 내지는 학년 1등 단과대학 1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전액 장학금도 주고 50%도 주고 70%도 주고 그 비율에 따라서 등유에 따라서 각각 차등한 비율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또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니드 베이스로 해갖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저소득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학교를 다니게 하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우리의 성적 장학금도 2022년부터는 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장학금의 이런 총량을 좀 줄이고 대신에 복지장학금이라든가 역량강화 장학금 이런 쪽으로 좀 바뀌서 장학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학생 요구에 맞게끔 그렇게 성적 장학금을 좀 조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또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학생 대표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 트렌드라든가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사용을 쓰면서 올해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작년보다 국가장학금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될 그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에 이제 배정이 될 국가장학금의 총량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쉽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더 마련해 주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내 장학금도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2023학년도에 교내 장학금이 한 40억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 올해도 아마 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도 늘어나고 교내 장학금도 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늘어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모두 학생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내 장학금을 지금 현재 시스템 대로 가기에는 조금 변화된 상황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학생처와 교학처의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서요.

당장 올해부터 교내 장학금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더 좋겠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성적 장학금도 지금의 체제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학생처와 교학처와 고민 지금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성적 장학금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개선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30%, 10%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최소 30% 이상씩 올려달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데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술공학대학 대표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학대학 대표자]

안녕하세요. 예술공학대학 5대 학생회장 예술공학부 양윤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 부총장님,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예술공학대학은 예술과 공학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 디자인 툴들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이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학대학 또한 요청드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술공학대학 내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내 실습실 컴퓨터 사양의 최신화입니다. 예술공학대학은 2019년 신설되어 당시 맞춤형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 실습실을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 등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올라갔지만 저희 대학의 컴퓨터 사양은 그대로이기에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느린 렌더링 속도,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술공학대학 특성상 대부분의 수업에서 실습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학생의 55%는 개인 노트북을, 24%는 데스크탑을 과제와 수업 진행을 위해 따로 갖춘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생이 구매하기는 어려워 일부 과제를 위해 80%의 학생들이 실습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73%가 컴퓨터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80%가 최신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들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과대 차원의 예산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학교 차원에서의 실습실 컴퓨터와 하드웨어의 교체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어도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술대학과 함께 더불어 예술공학 대학 내에서도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중시됩니다. 학생의 98%가 수업 시간에 어도비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100%의 학생이 어도비는 필수적이라는 답변을 제출하

였습니다. 또한 96%의 학생이 프로그램 결제 비용이 본인에게 부담된다고 답변했고 이를 통해 필요성에 비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매우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술과 공학의 융합형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 어도비의 포토샵과 영상 편집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예술대학의 어도비 지원의 답변을 들었으나 저희 학과 내 컴퓨터 사양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단과대 차원의 예산으로도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도비 같은 경우 예술대학뿐만 아니라 예술공학대학 내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의 필요성과 가격적인 부담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지원 받고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예술공학대학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춘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어도비 관련한 거는 아까 예술대학에 나온 걸로 좀 가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실 업그레이드는 제가 예술공학대학 교수님들이랑 행정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쪽은 굉장히 빨리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혁신지원사업비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아니면 서버를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서버를 구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와서 그거를 예술공학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들여서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서 아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다 적극적으로 서버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일단 구축이 돼서 일단은 수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도비는 이게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용 노트북을 좀 대여를 받든지 개선을 해야지 이게 그 일부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다 지원한다는 거는 컴퓨터가 한두 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학 컴퓨터 실험 실습실이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생명공학대학 실습실도 다 50대인가 100대가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수업하기 하는데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예술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갈음을 하고 일단은 어도비 관련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통해서 해당 과 교수님들이나 논의를 통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 및 다빈치캠퍼스의 대표 질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끝났습니다. 총장단과의 대화 1부는 대표 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아직 미처 못하신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와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정정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하고 4시 30분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20분 후)

지금부터 총장단과의 대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대표 질의에 미처 못하셨던 질문

이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빈치캠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다빈치캠 질문하실 분 먼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19번 테이블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체육대학 대표자]

안녕하십니까? 체육대학 학생회장 주상현입니다. 우선 올해 대운동장과 체육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총장님을 비롯해 총장단과 교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중앙대학교 스포츠단에서 축구 3관왕과 트래블 달성, 그리고 야구 대통령배 우승을 통해 최강 야구 방송 출연으로 저희 중앙대학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앙대학교를 사랑하는 일원으로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훌륭한 스포츠 인재를 배출하는 체육대학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구 골대와 골프 연습장입니다.

먼저 농구 골대는 20년이 넘어 고장과 부식이 많고 대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38차시의 강의가 있는데 강의마다 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사고와 노후된 골대로 인해 새로 보수한 마룻바닥 손상이 우려됩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도 천장조하식 농구대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앙대학교 골프학과는 다수의 프로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대학 골프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 전공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골프 연습장이 두 경쟁 학교에 비해 노후되어 있고 약 50야드의 짧은 거리로 인해 구질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입시 골프 일지망 대학임에도 시설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은 저희 체육대학뿐 아니라 타 모든 대학이 사용하는 공용 시설입니다. 교양 강의를 포함한 27차시 강의에서는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해 퍼팅 수업이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네 대체육관 거기 있는 농구골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식. 그거 체육대학 교수님들한테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서. 검토는 해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체육관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천장이.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하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일차적으로는 체육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설팀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거는 굉장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중에서 내려오면 보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천장 하중이 그걸 견디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시설팀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외 골프장 연습장은 이제 길이를 더 넓히려면 뒤에 이제 산을 다 깎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그것보다도 이제 바닥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다른 질의자분 있으실까요? 19번 테이블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아까 질의드렸던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김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 큰 노고를 해주신 부총장님의 답변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자면 원형관 내의 공간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텀플룸이라고 적혀 있지만 열악한 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단순히 방치되고 있는 경우이기에 실질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는 현황임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불필요하거나 개편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용도 변경이나 시설 개선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공간 파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받아본다면 저희가 요청한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결과를 학생 대표자들이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또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신재 교학처장]

네 교학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플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방치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학생들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생공대 혹은 예술공대 교학지원팀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그런 공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교학지원팀에 혹은 학장님께 혹은 교학지원팀장님께 연락을 다시 한 번 드려서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어 있는 공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학생 학부생들이 보기에 저 공간을 안 쓰거나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을 주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 혹은 학과 또 교수님 또 내지는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면 연구소가 됐건 또 BK 연구 사업단이 됐건 이런 데에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 공간일지도 모르겠으나 그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또 내지는 또 적극적으로 회의실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공간들이 진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총무처의 시설관리팀과 각 단과대학의 교학지원팀과 같이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죽어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분히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 현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원형관 말씀하신 원형관 6,7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공학대에서 주로 이렇게 해 주시고 5층이나 1,2,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공대에서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4층 같은 경우는 교양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데 각 관장하시고 있는 대학의 교학지원팀께 저희가 부탁을 할 거고요. 해서 학생 대표자들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소통해서 연락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마이크 주시고요.

[다빈치캠퍼스 산업디자인과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치 캠퍼스 산업디자인과 학생회장 김동주입니다. 우선 이번에 두 가지의 요청 사항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과 특성상 형태를 공부하거나 최종적인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 수에 비해 3d 프린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작년의 경우 한 수업 내에서 절반의 인원이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시 준비 기간에는 타 학년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추가 구매를 과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여 저번 회의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더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는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여전히 학과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라라는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심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고, 두 번째로는 학교 프린트 이용이나 목업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환기 시스템 보강 요청입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제 보강을 한 상태지만 사용을 해보니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3d 프린터가 하나 있긴 있죠. 공예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작년엔가 제가 시설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 있어요. 왜 고장이 났냐면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노즐에 먼지가 들어가 가지고 3d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하는 노즐에 있는 먼지만 딱 빼내니까 작동이 돼요.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산디 같은 경우에 지금 3d 프린터 관련해서 지금 신규 건적을 지금 의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정도 되면은 이거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산디나 시디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풍 시설은 어차피 지금 이제 808관이 이제 정체가 돼서 이제 환기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면 한번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산업 디자인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강의실이나 실습실들에서 환기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번 테이블로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6대 부총학생회장 경제학부 이민성입니다. 저희가 총 세 가지 정도 추가 질의를 한 번에 드릴까 하는데 비슷한 걸을 띄고 있어서 한 번에 드릴까 합니다. 2017년 대운동장이 완공된 이후에 대운동장 잔디를 교체한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24년 현재 대운동장의 잔디 길이가 많이 짧아져 있고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충진재 또한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잔디 아래에 있는 땅이 고르지 않아 높이 차가 생겨 부상의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운동장 잔디 교체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단위요구안에 포함하였고 두 가지를 요청해 드렸는데요. 대운동장에 대한 전면적인 장비 교체와 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운동장은 매년 전문 업체를 통해 충진재 충진을 통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교체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차례 등록금심의 위원회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자격으로 총학생회장님께서 참석한 결과 대운동장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예산과 102관 및 중앙도서관 흡연부스 설치 그리고 중앙마루 엘리베이터 설치 총 3가지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받은 바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교성 기획처장]

네 학생회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네 차례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4,200억가량 심의를 완료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와 다빈치캠퍼스 학생회장님들이 아주 큰 활약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에게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서울캠퍼스는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107관 앞에 중앙마루 그리고 운동장 인조잔디 있고 그리고 흡연. 그래서 총 4억 8천 정도 예상했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빈치캠퍼스 역시 여러 가지 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대학의 농구장 반자동식? 그것도 4천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억 정도 그리고 행사비에서 11억 정도를 좀 추경으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희 대학의 예산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청해 주신 금액들을 제가 다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약속드리기로서는 각 캠퍼스별로 요청하신 금액의 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캠퍼스 3억 그리고 다빈치캠퍼스 5.5억 정도는 예산을 배정할 테니 이제 프라이오리티 순서는 각 학생회에서 정해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학교가 본 예산은 4,200억 정도로 했지만 대체로 한 300억 이상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봐가면서 학교 예산이 허용한다면 나머지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의? 16번 테이블에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테이블에 마이크 16번이요 앞으로 앞쪽으로 와주세요.

[다빈치캠퍼스 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서서 발언 드렸던 총학생회장 윤규란입니다. 네 우선 추가 질의 부분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단위요구안이나 아니면 학생자치 기구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중앙 단위에서 이제 기숙사 시설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안전화 하게 되는데 사실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출처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교비로 집행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빈치캠퍼스 내에서는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많고 더하여 이제 확대운영위원회를 어제 진행한 바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이 다빈치캠퍼스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또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대표자분들께서 많이 제공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작업을 하는 예술대학 학생들에게는 이 시공 시간 동안에 뭔가 실습실의 활용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이 계획에 대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서울캠퍼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공간의 부족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계획해오신 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빈치캠퍼스를 대상으로 해서는 신축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이 아예 없으신지 중장기적으로도 없으신지 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재 교학처장]

네 기숙사 관련해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다빈치캠퍼스에 있는 기숙사가 건립이 된 지 제일 오래된 건 한 40년 가까이 됐고요. 40년이 좀 넘었고 가장 최근에 지은 게 이제 20년이 넘은, 25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 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상황에서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라든가 또 방역이라든가 기타 소모품 등등등등 해서는 저희 다빈치캠퍼스 생활관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학생 사용하는 관생들의 불만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들 좀 신축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술술 나온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이 자리에서 5년 이내에 내년에 이걸 좀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교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 연구,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연구 생활과 같은 이런 우선순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좀 긴 호흡에서 검토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또 총장님이나 우리 총장단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또 우리 기획처장께서도 누누이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더, 더 시급한 거 위주로 해서 정책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숙사에 있어서는 교학처에서 이제 기숙사를 같이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우리 관생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자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3억원을 들여가지고 의자를 전부 다 교체하고 기숙사 거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리모델링 우선순위에 관

해서는 학교에 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대표도 참가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한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 다빈치캠퍼스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영을 하죠.그래서 연 거의 한 5억 정도를 또 다빈치캠퍼스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총장단이나 보직 교수들은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든 걸 좀 해결하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장님한테 마이크 넘겨주세요.

[박상규 총장]

예. 서울캠퍼스만 계속해서 신축이나 리노베이션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캠퍼스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비좁아서 사실은 이제 공간을 공동으로 세어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스스로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천억 줄 테니까 500억은 내가 좀 쓸게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하거든요.

넓은 학교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서울캠퍼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안성캠퍼스는 그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도도 사실은 기숙사를 새롭게 짓고 약간의 건물을 만들어서 그쪽 투자하는 기관이 그 공간을 쓰고 기숙사는 우리가 쓰는 이런 딜이 진행이 되다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슈 때문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성캠퍼스는 이제 공간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관심자들이 조금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법인이나 대학의 돈으로 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을 한 4년 동안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법인과 대학이 이제 그런 조건을 찾아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안성캠퍼스도 리노베이션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는 한 2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장 어떤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우선순위는 아마 기숙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의하실 게 궁금한 팀? 여기 4번 테이블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4번.

[경영경제대학 대표자]

네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 경영경제대학 대표 질의 드렸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김윤지입니다. 먼저 앞선 질의에 대한 310관 자유이용 공간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실질적인 진행 답변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부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음향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의에 대한 전달이 모두 되지 않은 듯하여 추가 질의 드리

고자 합니다.

저희 경영경제대학은 자유이용 공간 신설뿐만 아니라 310관 1층에 초록 의자가 배치된 라운지나 각 층에 존재하는 소파 공간 등 기존 310관 내에 존재하는 자유이용 공간의 재구성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 신설과 마찬가지로 학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안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 학생회하고 위원실하고 시설처가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하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3월부터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 2 3부로 진행되고 3부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 다 안가시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식사하실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혹시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 못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질문 2개 정도만 받고 2부 행사 마무리하고 3부에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일단 두 분 할게요. 여기 14번 테이블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13번 테이블 질문하시고 이렇게 두 분만 먼저 두 분만 받고 다른 분들은 저희 3부 행사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소재공학과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장 김선욱입니다. 저는 저희 첨단소재공학과와 거취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과는 신설된 지 올해로 4년 차이며 서울캠퍼스 단과대인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는 현재 다빈치캠퍼스 609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첨단소재공학과 학생들이 공과대학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만 다빈치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속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첨단소재공학과와 거취 문제에 대한 학교의 생각은 어떤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총장]

첨단소재공학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캠퍼스별 정원은 교육부에 이동을 하려면 허가를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캠퍼스 단일화 교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캠퍼스 정원을 지금 현재는 이동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지 단일화의 목적에 맞게 서울과 안성캠퍼스의 정원을 좀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허락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정원을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교육부랑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 첨단소재공학과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서울로 이동할 것이 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처음에 첨단소재공학과가 만들어질 때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공대 소속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중앙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첨단소재 같은 첨단 분야가 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학생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좀 우리가 학사 교류 이런 걸 좀 유연화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14번 테이블 아까 질문하시고 잠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 대표자]

네 안녕하세요. 통일공대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 강지은입니다. 다른 학과 부들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겠지만 저희 소프트웨어학부의 경우 현재 수업 및 교실, 교수님들 수에 비해 학생 수가 한 학년당 약 200명으로 과하게 많아서 수강 신청 및 수업 시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한 수강 여석으로 인해 졸업 학점 140, 전공학점 84학점이라는 졸업 요건을 현실적으로 8차학기 이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3학번의 경우 졸업 전공 학점이 기존 84학점에서 72학점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23학번 이전 학생들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별도 협의 없이 수강 학년이 변경됨으로 인해 휴·복학생의 경우 전공 과목을 자타로 수강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수강 신청 여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어 졸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수강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과 별도 협의 또는 구제 방안 없이 강의가 폐강되어버린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 소프트웨어학부의 모든 학우들이 수강 신청 시기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단위요구안 제출을 통해 총무팀과의 협의로 해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제 저희 학교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진행 현황의 공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학우들의 요청을 검토하고 종합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혹은 강사의 충원, 재학생 적용 가능 학칙 개정을 통한 졸업 요건, 전공 학점의 완화, 자타 여석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여석의 증가, 여석으로 인한 시 추가학기 시 추가학기 등록금 면제 등을 요청한 만큼 이런 요청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와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준기 교학부총장]

네 잘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가 좀 특수한 환경에 있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체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과기정통부의 대형 사업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지원을 받으면서 또 대학의 대응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새로 신청을 할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문제 중에 졸 요건, 전공학점 또 수업의 과다 문제 여석의 증가 필요 문제 같은 거 등등이 일단 졸업요건, 전공학점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다른 대학교의 경쟁도 좀 현재 있는 소프

트웨어 코딩 교육보다 한 단계 미래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학부의 교수님들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학생 이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만들지만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전달을 해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라라고 전달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폐강 동의, 참 교수 강사의 충원 문제에 대해 저희도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대학은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전공은 지금 우수한 교수님을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고 우수한 교수님만 있으면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 본부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충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학과에서 원하는 만큼의 강사 충원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석 증가 같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의실 문제도 있고 총무처와 좀 하여튼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2부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3부에서 만찬을 겸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총장님 부총장님 각 부서 처장님들께서 한 분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과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해 주실 거니까 추가 궁금하신 질문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학년도 리더스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